

기술분석보고서 소재

에스케이시그넷(26087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에스케이시그넷(260870)

초급속 충전 기술로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혁신을 이끄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5.11.27 기준)

대표자	조형기
설립일자	2016.12.13
상장일자	2017.08.30
기업규모	기타 대기업
업종분류	소재
주요제품	전기차 충전기 제조

시세정보(2025.11.27 기준)

현재가(원)	8,4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573
발행주식수	18,569,800
52주 최고가(원)	18,430
52주 최저가(원)	7,700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황호철, SK(주), 리오제일호사모투자 (자)

■ 글로벌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에스케이시그넷(주)(공시회사명 ‘SK시그넷’, 이하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솔루션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C 완속부터 DC 급속·초급속 충전기까지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용량 초급속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능력 확충과 제품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그룹 차원의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충전 인프라 확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고출력 충전 기술 기반의 제품 경쟁력

동사는 30kW급 완속 제품부터 200kW·350kW 이상급 초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한 고출력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플러그앤차지(Plug & Charge), 원격 진단, 충전 운영 소프트웨어 등 통합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지역의 충전 규격(CCS·NACS 등)에 대응하는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와 충전사업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전기 모듈화 설계를 통해 유지보수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 확장과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전략

동사는 미국 현지 생산 증설과 함께 북미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초급속 충전기 수요 증가에 맞춰 고출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충전 운영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통합 솔루션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지원,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사는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영업망 확대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623	102.9	30	1.8	73	4.5	2.8	2.4	18.3	506	18,471	79.04	2.17
2023	507	-68.7	-1,494	-294.5	-1,297	-255.6	-65.0	-42.6	117.6	-8,892	9,667	N/A	2.56
2024	838	65.2	-2,428	-289.7	-2,441	-291.2	-1,413.0	-90.0	자본잠식	-16,636	-6,705	N/A	N/A

기업경쟁력

초급속 충전 기술력	350kW급 이상 고출력 충전기 기술과 다양한 규격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미국 현지화 생산체계	미국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북미 충전 인프라 정책과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급망과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동사 대표 제품	
고출력 전력변환 기술	V0
	V1
	V2
지능형 충전 제어·운영 기술	DC Charger (Fast)
	DC Charger (Fast)
	AC Charger

시장경쟁력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실적	TeraWatt Infrastructure, Francis Energy, Gilbarco 등 북미 주요 충전사업자와의 공급계약을 비롯해 EVgo형 초급속 충전기 인증 기반을 확보하며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완성차와의 폭넓은 호환성 검증	닛산, 현대-기아, BMW, Ford,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와의 충전 호환성 검증을 선제적으로 완료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신뢰도와 적용성을 확보하고 있음
모듈화 기반의 생산·서비스 효율성	모듈형 설계로 제품 개발·양산·유지보수 효율을 높여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문 제조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 초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보급 기여
S 사회책임경영	◎ 윤리규정 기반 협력사 및 구성원 대상 반부패 실천 ◎ 익명 제보·상담 채널 운영 및 제보자 보호 체계 구축
G 기업지배구조	◎ SK 그룹 지배구조 체계 내 안정적 거버넌스 운영 ◎ 이사회 의안 공개 및 주요 경영사항 정기 보고 체계 운영

I. 기업 현황

초급속 충전 기술로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를 선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동사는 2016년에 설립되어 완속·급속·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30kW~600kW급 전기차 충전기로, 닛산·현대기아·BMW·Ford·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와의 호환성 검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주)시그넷시스템으로부터 전기차용 충전기 제조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2006년부터 전기차용 충전기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완속부터 급속·초급속까지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다. 닛산, 현대·기아, BMW, Ford,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와의 매칭테스트를 선제적으로 완료해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지역 인증을 보유한 100kW~600kW급 초급속 충전기 라인업을 중심으로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공급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남 영광 본사 및 미국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모듈형 설계 기반의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객 요구와 충전 인프라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초급속 충전 기술 고도화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2016년 설립된 이후 초급속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왔다. 2017년 코넥스 상장과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 2018년 세계 최초 350kW급 초급속 충전시스템 미국 UL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2019년에는 EV 패배터리 ESS 연동 100kW 충전시스템의 세계 최초 차데모 인증과 벽부형 충전기 미국·유럽 인증을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2020~2021년에는 미국법인 설립과 EVgo 사업자 선정, SK(주) 인수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으며, 2022년 텍사스 생산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구축했다. 2023~2024년에는 V2 시리즈 글로벌 인증, TeraWatt·Francis Energy 수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사업 수주, Gilbarco 독점공급 파트너십 등 주요 성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조형기 신임 CEO를 선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2026년 주총 후 선임 예정). 조형기 CEO는 2000년 SK네트웍스에 입사한 이후 SK주식회사·SK네트웍스·SK일렉링크 등 SK그룹 핵심 계열사에서 전략·재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영 전문가이다. 특히 SK일렉링크 재임 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체계(CPO) 구축과 공공충전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제조·운업을 아우르는 충전사업 실행력을 입증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전략·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충전기 시장에서 기술·품질 중심 경쟁력을 갖춘 동사의 성장 방향을 주도할 책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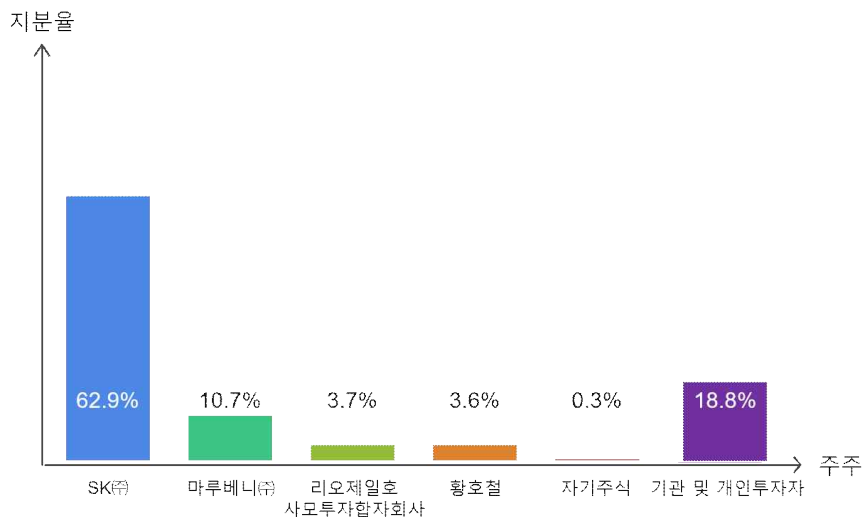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주주현황

2025년 3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SK(주)로 지분 62.9%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마루베니(주)로 10.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오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3.7%), 황호철(3.6%), 자기주식(0.3%)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은 1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 주주현황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30kW급 완속 제품부터 100~600kW급 급속·초급속 충전기에 이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고객사에 자체 영업조직을 통해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정유사·충전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민수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북미를 중심으로 현지 유지보수·기술지원 조직을 운영하며 초급속 충전기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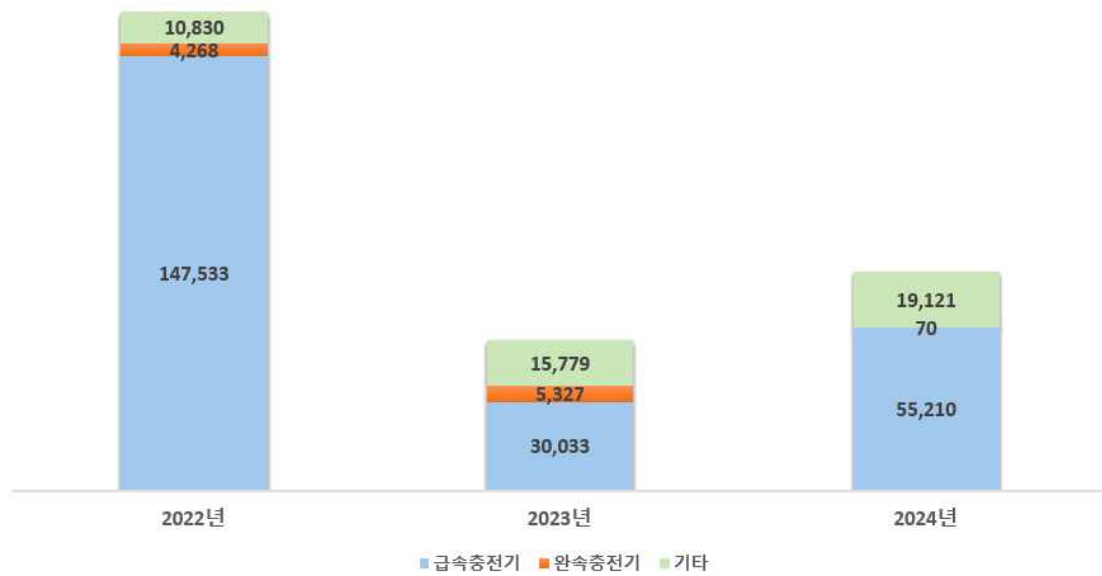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744.0억 원으로 전년 511.4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제품별로는 급속충전기가 552.1억 원(74.2%)으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하였고, 완속충전기 매출은 0.7억 원(0.1%)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기타 매출은 191.2억 원(25.7%)으로 A/S·공사매출·반제품 판매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50kW 이상 급속충전기를 중심으로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가 명확하며, 고출력 충전기 수요 확대가 동사의 외형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에 따라 동사는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매출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유사 및 민간 충전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민수 시장에서도 장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Francis Energy와 2027년까지 최소 1,000기 규모의 초급속 충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북미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마루베니와 해외 판매권 계약, 2024년 길바코(Gilbarco)와의 독점 판매 계약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 텍사스 생산법인의 본격 가동을 통해 북미 초급속 충전기 생산·공급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증·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초급속 충전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에스케이시그넷(260870)

그림 3. 연도별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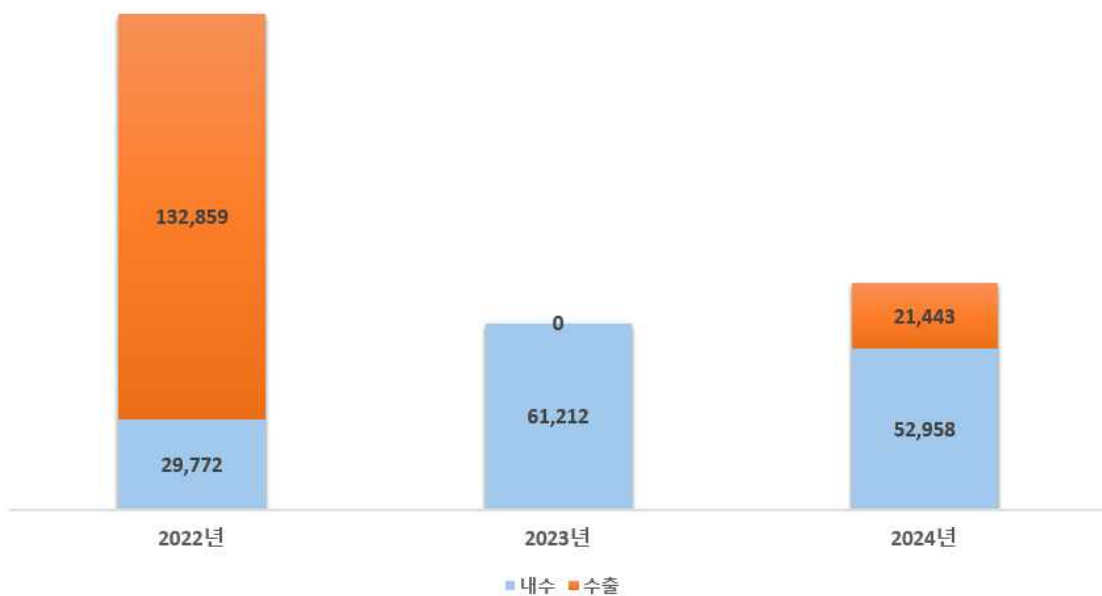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별도기준 매출액

그림 4. 내수 및 수출실적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3년 수출 매출은 정산 조정(-10,073백만원)으로 인해 그래프에서는 0으로 반영

II. 시장 동향

국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 성장세 지속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확대 전략, 탄소 중립 목표 추진 등은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향후 충전 요금 체계 개선, 광고·데이터 서비스 등 부가 수익원 창출이 필요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수익성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 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고서(2025)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746억 원이며, 이후 연평균 36.1% 증가하여 2028년 2조 6,8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충전 인프라의 경우 2024년 10월 기준 약 395,000(급속 충전기 약 45,000기, 완속 충전기 약 350,000기)기의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차량 대비 충전기 비율에서 세계 1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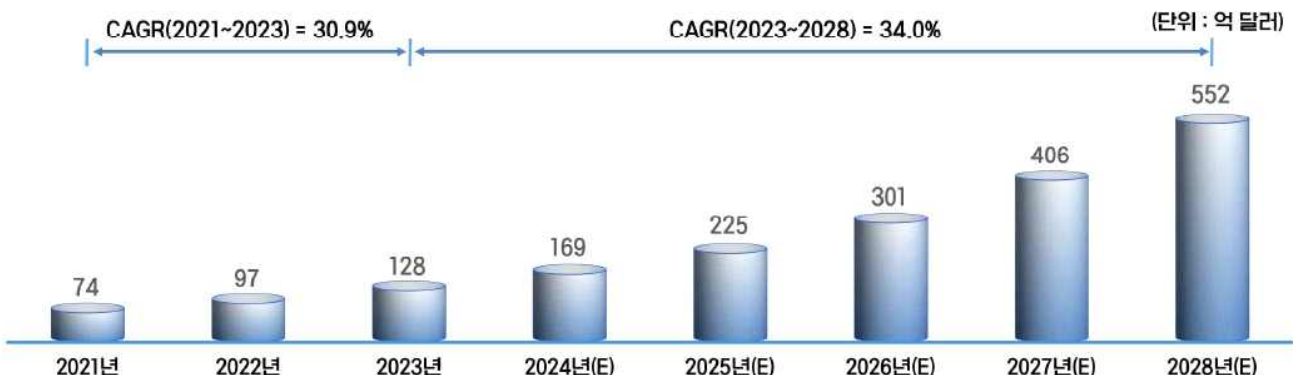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28억 달러이며, 이후 연평균 34.0% 증가하여 2028년 5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아시아태평양 43.7%, 북미 24.2%, 유럽 23.5%, 남미 5.0%, 중동 및 아프리카 3.6%로 나타났으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림 6. 세계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특성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완성차 업체 · 충전사업자 · 에너지 기업 · 정부기관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충전기 제조사는 완성차 호환성, 안전규격,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전사업자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시장은 완속 · 급속 · 초급속 충전기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 충전 표준(CCS, NACS 등)과 전력망 환경 차이에 따라 제품 개발 · 인증 체계가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신뢰성과 규격 대응력, 현지 생산 · 서비스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 기술 및 경쟁 환경

전기차 충전기 산업은 고출력 전력변환 기술, 열관리 기술, 소프트웨어 기반의 충전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완성차 주행거리 증가와 배터리 용량 확대에 따라 초급속 충전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전 속도 · 효율 · 안정성을 결정하는 전력전자 설계 역량이 주요 경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와 충전 운영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하드웨어 제조 역량뿐 아니라 통합 플랫폼 대응력도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증 취득 속도, 고출력 제품 라인업의 완성도, 대형 충전사업자와의 파트너십 확보 여부가 기업 간 경쟁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산업 전망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정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충전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고출력 · 고신뢰성 중심의 초급속 충전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충전 표준 통합 흐름과 충전 운영 서비스의 고도화는 제품 개발 방향과 시장 진입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유지보수 자동화를 위한 기술 수요가 높아지면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통합 경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현지 생산 ·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한 업체, 고출력 기술력과 인증 역량을 갖춘 업체, 대형 충전사업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전후방산업

인버터, 컨버터, 전력 케이블 등 전력 반도체 부품 산업	전기차 충전기	충전 서비스 산업, 충전 인프라 유지 보수 산업, 전기차 충전소 산업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25),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초급속 충전 기술과 전력전자 역량을 갖춘 글로벌 충전 솔루션 기업

동사는 200~600kW급 고출력 전기차 충전을 구현하는 전력변환·열관리·통신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규격에 대응하는 초급속 충전기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통한 시험·인증·모듈 설계 역량을 확보하여 안정성·호환성·품질 신뢰성을 갖춘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Total Solution 기반 기술력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를 중심으로 충방전기·충전소 운영(CPO)까지 아우르는 기술 체계를 구축하며 ‘Total Solution Provider for EV Charging’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급속·초급속 충전기 설계부터 시험·인증, 생산, 운영·관리까지 전 주기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 고객사 맞춤형 설계와 신속한 기술 대응이 가능한 점이 동사의 핵심 기술 기반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 영광 생산공장과 미국 텍사스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며 글로벌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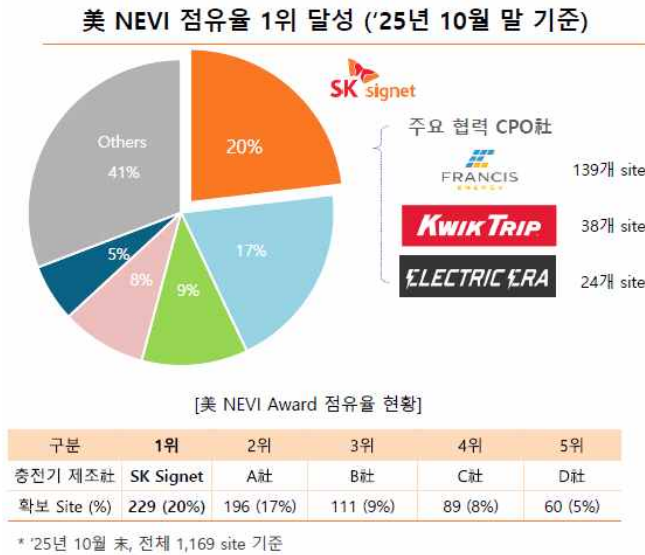
그림 7. 동사의 경쟁력(Total Solution Provider for EV charging)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아울러 동사는 미국 NEVI(국가전기차충전인프라) 프로그램에서 1,169개 중 229개 부지를 확보하며 부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동사의 기술 신뢰성과 제품 호환성·표준 대응력 등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평가된다. 또한 북미·유럽·남미·오세아니아 등에서 GVR 및 Reseller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며, Total Solution 기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 8. 미국 시장 리더십 강화 - NEVI Award



美 NEVI 진행 현황

신규 NEVI Guidance와 신속한 예산 승인 진행으로 '26년 이후 NEVI 가속화 예상

□ 신규 Guidance 주요 내용('25년 8월)

- NEVI 규제, 절차 완화 및 주별 자율성 확대에 초점
- NEVI 예산은 법적 확정 예산(\$4.2B)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無
- Total NEVI 예산 中 87%(\$3.6B) 미집행 상태
- 계획 일정('27년) 후, 전체 예산 中 미집행 예산은 Roll-Over 예정

[NEVI 신규 Guidance 주요 변동 사항]

항목	개정안/변화
예산 집행 권한	연방 정부 → 주정부로 이양
계획 승인 요건	서류 간소화 및 행정 절차 완화
충전소 간격	50마일 간격 요건 제거 및 유연화
데이터 보고	강화(세부 요구 추가)

□ NEVI 진행 현황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0.6B	\$0.9B	\$0.9B	\$0.9B	\$0.9B
집행		\$0.14B	\$0.22B	\$0.24B*	

* '25년 10월 末 기준임.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업계 최대 수준의 R&D 인프라와 고도화된 시험·검증 역량

부천 R&D센터(C-Lab)는 업계 최대·유일 규모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800kW대형 시험챔버 4대, 4CH 동작 차량용 시뮬레이터, EMI 챔버 등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전 효율, 열·과전류·과충전 시험, 차량과의 통신 호환성 검증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인증기관 기준 이상 수준의 사전 검증 능력으로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해외 인증(미국, 유럽 등)의 빠른 획득과 제품 출시 리드타임 단축에 크게 기여하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기술적 안정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북미향 400kW All-In-One 급속충전기 개발 과정에서도 C-Lab의 시험역량이 활용되었으며, 고출력 환경에서의 열·내구성 검증 및 Power Module 효율성(97%) 평가 등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 동사 연구개발 역량

부천 R&D 센터 (C-Lab.)	주요 성과
□ 국내 업계 최대·최초·유일의 R&D 인프라 구축 - 국내 최대 규모 환경 챔버 4대 (800kW ↑ 대형 3, 중형 1), 200명 이상 개발/검증 공간 확보 - 업계 최초 4CH 동작 차량용 시뮬레이터, EMI 챔버 (800kW ↑) 등 보유 - 대규모 Eco-friendly 전력 인프라 구축 (4,000kW ↑ 친환경 전력 운영) □ 사전 시험 수행 및 인증기관 이상 테스트 진행 2차 전지의 충방전 효율, 용량, 수명평가 - 안전 기능(과전압, 고온, 과충전, 과방전 등) - 외부장치 제어(하온, 하습) 및 안전 기능(과전압, 고온, 과충전, 과방전 등) 테스트 진행 → 엄격한 자체 기준 적용을 통한 제품 완성도 향상 & 안정성 확보	□ V2 플랫폼 기반 표준화 모델 구축 - V2 표준화 모델 개발 및 Full 라인업 확대 전개 - NACS*적용을 통한 美 NEVI Program 선제적 대응 - 안정적인 제품 Portfolio 구축하며 미국, 유럽 등 Global 시장 확장 용이 *NACS: North American Charging System □ 체계적인 개발 /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 - 효율적 분리 냉각 시스템과 방수 방진 특화 기구를 통한 제품 내구성 확보 - 북미 지역 V2 200kW, 600kW 모델 리모델링 결과 Uptime 99% 성능 개선 - 국가별 규격 및 고객 요구 사항 충족 제품 개발로 Global 시장 확장 기반 마련 □ 안전 기술 강화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한 안정성 강화 - 충전기 내/외부에 기본 & 추가 안전 기능 장착 - S/W 자가진단 개발을 통한 고객 안전과 편의성 증대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V2 플랫폼 중심의 고출력 제품 기술력 및 표준 대응 역량

동사는 차세대 V2 플랫폼을 기반으로 200kW~600kW급 고출력 제품군을 표준화하며 성능·신뢰성이 향상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NEVI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NACS 적용 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주요 충전사업자의 요구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다. 완속·급속·초급속 전반의 HW·SW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안정적인 동작률(Uptime)과 충전 성공률(미국 기준 91~96%)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품 모듈화·단순화를 통해 제품 설계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여 고출력 충전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림 10. 동사 품질/기술 역량

□ 품질개선 기반 제품 혁신

- 성능 강화
 - 韓 : 공공 급속충전시설 고장률 0.1% 달성*
 - 美 : Uptime 99%, 충전성공률 91%~96%**
- 원가 개선
 - 주요 부품 모듈화, 단순화

* 환경부 누리집 운영현황 ** 총 30대 data 평균

□ 국내 유일 CCS + NACS 적용 제품 라인업 확보

- 韓 : 30kW ~ 200kW 적용完
- 美 : 200kW, DP400 PC 600kW
- 국내 최초 수냉식 NACS 출시
(고사양/고출력 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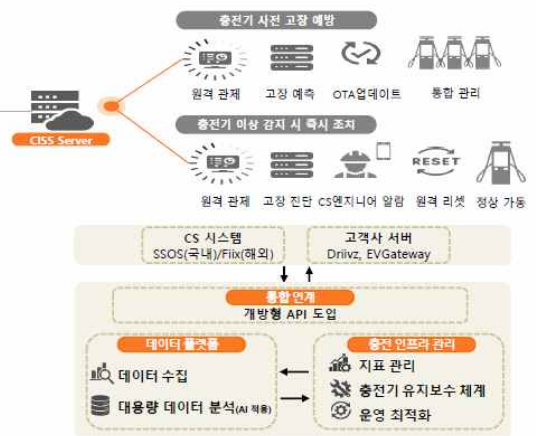


[NACS] [CCS1]



□ 충전 인프라 관리 플랫폼(*CISS)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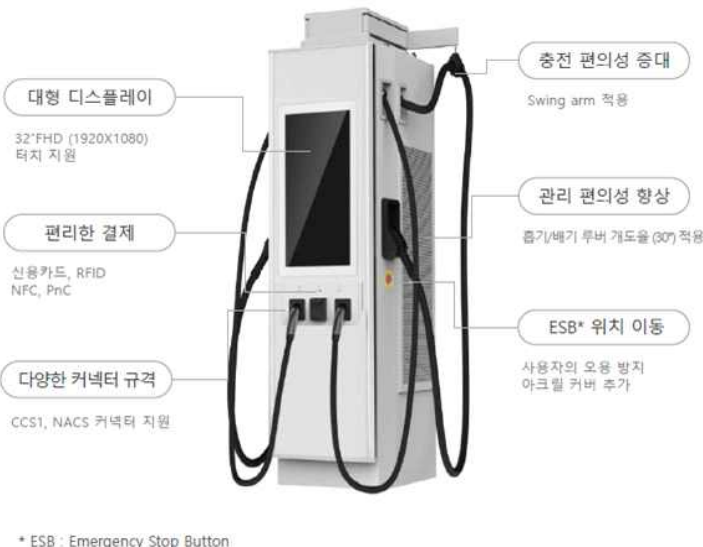
* CISS : Charge Integrated Support System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더불어 2025년 북미향 400kW AIO(All-In-One) 제품을 출시하며 CCS1·NACS 듀얼 규격 대응, 320·360·400kW 출력 선택, 스윙암 기반 케이블 관리, ESB 개선 등 사용자 편의·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V2 기반 고출력 모델의 확장은 NEVI 대응성과 북미 EVSE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림 11. 미국 시장 리더십 강화 - 제품 라인업 확장(400kW)



* ESB : Emergency Stop Button

① 전력 출력 확장성

- HW당 3가지 다른 전력 출력 선택 가능 (Power Outputs: 320kW, 360kW, 400kW)
- 40kW 전력 모듈 적용으로 효율 증대(97%)



②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

- 케이블 관리를 위한 스윙 암 적용
- 비상 정지 버튼 위치 변경 및 커버 적용
- 접기/배기 루버 각도 30°로 변경, 개도를 확대



[ESB]

③ 충전 케이블 범용성 확보

- Quadruple 충전 케이블(CH1~CH4) 제공
- CCS1, NACS 중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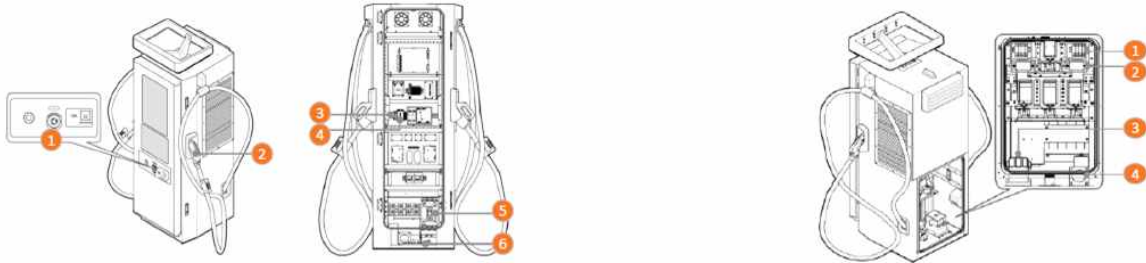
5.5m 케이블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품질·안전 중심의 제품 신뢰성 강화 기술

동사는 충전기 품질 안정성 강화를 위해 CS Insight & Support System(CISS)을 자체 개발하여 원격 관제, 고장 예측, OTA 업데이트, 실시간 진단·조치 기능을 구현했다. 이는 충전기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고장 부위 식별과 원격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 고객사의 유지보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비상정지 버튼, 커넥터 온도센서 기반 과열 차단, 보조차단기(ELB), 단상 노이즈 필터, DC SPD 등 다중 안전장치를 내장하여 화재·과전압·과전류 등 예측 불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충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 기술은 공공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높은 기술평가 점수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북미형 400kW 모델에서 ESB 위치 개선, 스윙암 적용, 냉각 루버 각도 확대(30°) 등 실제 사용자 환경 기반 안전·편의 개선 설계가 추가되며, 제품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림 12. 동사 제품의 안전기술



구분	No.	명칭	설명
전면	1	비상 정지 버튼	충전기를 즉시 정지하고 충전을 멈춤
	2	커넥터 (=커넥터)	커넥터 내 온도 센서를 통해 특정 온도 도달시 충전을 멈춤
	3	보조 차단기(ELB)	누전으로 인한 지락 전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 과전류가 발생 시 회로 차단
	4	단상 노이즈 필터	전자기 노이즈를 감쇄
	5	주전원 차단기 (ELCB)	누전으로 인한 지락 전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 과전류 발생 시 회로 차단

구분	No.	명칭	설명
후면	1	DC SPD (Surge protect Detection)	낙뢰와 같은 과전압(서지) 발생 시 충전기를 보호
	2	DC Fuse	주 전원에서 접지 결함이나 단락이 발생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과전류를 차단
	3	Magnetic contactor (M/C)	이 전기 스위칭 장치는 전자석을 이용하여 접점을 조작함으로써 회로를 열고 닫음
	4	Noise filter / coil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을 줄이고 필요한 신호를 전달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주요 고객·정부기관 대상 대규모 수주를 이끈 기술 신뢰성

동사는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권역 수주를 2년 연속 확보하며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외 주요 충전사업자와의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NEVI Award 다수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Gilbarco Veeder-Root와 독점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해 글로벌 유통·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Francis Energy, Electrify America, Electric Era 등 미국 주요 사업자가 동사의 제품을 채택한 것은 고출력 성능·인증 역량·품질 신뢰도 등이 해외 고객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2025년 기준 NEVI 부지 점유율 약 20%로 업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동사의 제품 호환성, NACS·CCS1 지원력, 고출력 라인업 등 기술 기반 경쟁우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그림 13. 국내시장 매출 다변화, 수주확대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사업 수주

"10여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와 경쟁, 1,2권역 전체 석권"



200kW 일체형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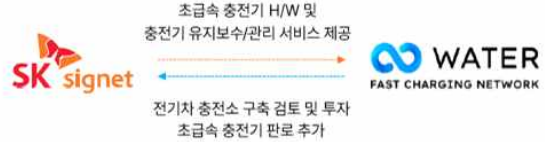
- 국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정책 및 방향에 상징성을 가지는 핵심사업
- 기술평가 90점 만점* 중 1권역 87.29점, 2권역 86.71점 획득으로 기술력 인정
- *10점은 가격평가
- 2025년 환경공단 권역 낙찰 추진 중

□ 수주 현황

구분	수량	금액
1권역	200kW 100기	총 100억원
2권역	100kW 130기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한 파트너 확보

충전기 제조사와 충전소 운영사의 상호간 업무협력으로
초급속 충전기 인프라 사업확대 목표



【WATER 소개】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브랜드로 3년내 Top3 CPO사업자 목표로 공격적 사업확장 중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는 블랙록으로부터 3,810억 투자유치(누적)
-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와 더불어 태양광 및 ESS 사업 영위
- '24년 전국 46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초)급속충전기 209기 설치 시행자 선정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충방전(Bi-directional) 및 충전소 운영 기술 기반의 신성장 확장성

동사는 EV 충전 기술과 전력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충방전기 등 2차전지 응용 제품 영역으로 기술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Cell 충방전기 제품을 개발·출시해 고객사 발굴 및 해외 수주까지 확보했다. 또한 충전기 제조 기반의 기술적 강점을 활용해 충전소 운영(CPO) 사업으로도 확장하고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 중심으로 다수의 충전소를 개소하며 실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향후 충방전·CPO·초급속 충전 HW·SW 통합 기술이 결합되면서 동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 전반에서 기술 기반 사업 확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림 14. 신성장 엔진 발굴

충방전기 사업

□ 사업 진출 배경 및 강점

- 당사 R&C 기반 2차 전지 분야와 기술적 연관성과 H/W 구성의 유사성 高
- 자사 인력 및 Asset 활용으로 즉시 진출 용이
- 충전기 외 안정적인 제품 Portfolio 필요

□ 충방전기 사업 Milestone

- Cell 충방전기 제품 개발 착수 ('21년 12월)
- '23년 Cell 충방전기 출시 및 135억원 수주
- '24년 하반기 충방전기 Full Line-up 확보
- 신규 고객사 발굴 및 수주 확대하며 본격 성장

□ 글로벌 충방전기 시장 규모

-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19% 성장 전망 (9조원('23년) → 30조원('30년))



충전소(CPO) 사업

□ 사업 진출 배경 및 강점

- 기존 당사의 강점인 충전기 제조분야를 바탕으로 제품관리 및 A/S 지원이 유리
- Value-Chain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
- 충전기 외 안정적인 제품 Portfolio 필요 (충방전기 사업과 동일)

□ 충전소 사업 Milestone

- '23년 4월, 고속도로충전소 11개소 88기 운영 개시
- '24년 6월, 도로공사 주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사업자 선정, 신규 42개소 191기 확장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아울러 유럽·북미·남미·오세아니아 등지에서 V2 기반 제품을 활용한 Pilot Site 구축 및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충전 HW·SW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GVR 및 Reseller Partnersh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5.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



출처: 동사 IR 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또한 동사는 높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별도 기준 연구개발비는 190억 원 수준이며, 매출 대비 R&D 비중은 25%를 상회한다. 이러한 지속적 투자는 고출력 충전기, 전력변환 장치, 차량 연계 제어기술 등 핵심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적분할 이전부터 정류기, 전력변환기, 연료전지 기반 전원장치 등 약 29건의 다양한 전력전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기술 기반을 넓혀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V2 플랫폼, NACS 대응 모델, 초급속 제품 라인업 등 최신 기술 개발로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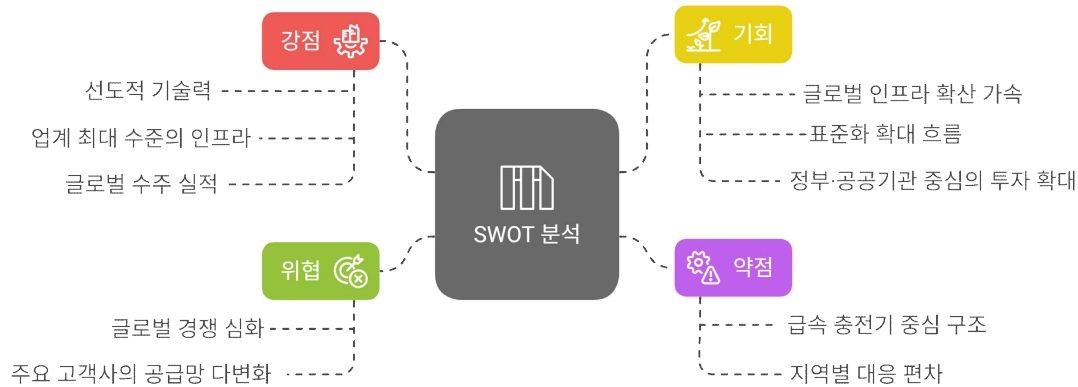
표 2.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연구개발비용 계	19,001	19,030	10,244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25.54%	41.27%	6.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선도적 기술력: 200~600kW급 V2 초급속 충전기와 NACS 대응 기술 등 고출력·고효율성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글로벌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업계 최대 수준의 인프라: 국내 최대 규모 부천 R&D센터와 800kW급 대형 챔버·차량 시뮬레이터·EMI 챔버 등 첨단 테스트 장비를 갖추어 전주기적 제품 개발 수행 기반을 확보함
- 글로벌 수주 실적: 미국 텍사스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NEVI 사업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TeraWatt·Francis Energy·Gilbarco 등 글로벌 CPO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함

2. 약점 (Weaknesses)

- 급속 충전기 중심 구조: 급속·초급속 중심의 제품 구조가 강점이지만, 저용량·저가적군 제품의 경쟁력은 제한적이며 민수·소형 시설 시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제품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좁음
- 지역별 대응 편차: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고장조치 등 서비스 품질의 지역별 편차 가능성이 존재함

3. 기회 (Opportunities)

- 글로벌 인프라 확산 가속: 미국·유럽·아시아 전반에서 고출력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초급속 제품 중심의 시장 수요가 증가함
- 표준화 확대 흐름: 북미 NACS 채택 확대, 유럽·국내의 규격 고도화 등 시장 표준 정립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규격 대응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유리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
-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투자 확대: 국가 주도의 인프라 확대 정책이 진행되며, 기술평가 중심의 경쟁 체계에서 고출력·안전성·품질 인증 역량을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4. 위협 (Threats)

- 글로벌 경쟁 심화: 초급속 충전기 시장 성장에 따라 해외 제조사와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진입이 지속되고 있음
-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북미·유럽 주요 CPO 및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벤더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IV. 재무분석

2024년 이후 매출 상승세, 영업손실 축소 예상

동사는 제품 품질 개선 및 출하량 증가로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65.2% 성장하고, 2025년 3분기에도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원가 압박, 고정비 증가, 구조조정 및 품질 개선 비용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SK시그넷 2.0' 체제 출범으로 구조적 혁신 및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2025년에는 손실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매출 반등

SK시그넷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속도에 따라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로 구분된다. 동사는 급속 및 초급속충전기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사로 선정되어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동사 매출은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그리고 기타 매출의 수출과 내수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매출 기준, 급속충전기의 수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4%를, 내수 매출이 10.3%를 차지하며 주요 매출을 구성하고 있다.

동사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800억 원, 2022년 1,623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2023년 미국 주요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반품이 발생하여 매출액이 감소, 507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2023년 반품된 충전기를 재판매하고, 미국 NEVI 보조금 요건 충족으로 현지 판매를 확대하며 838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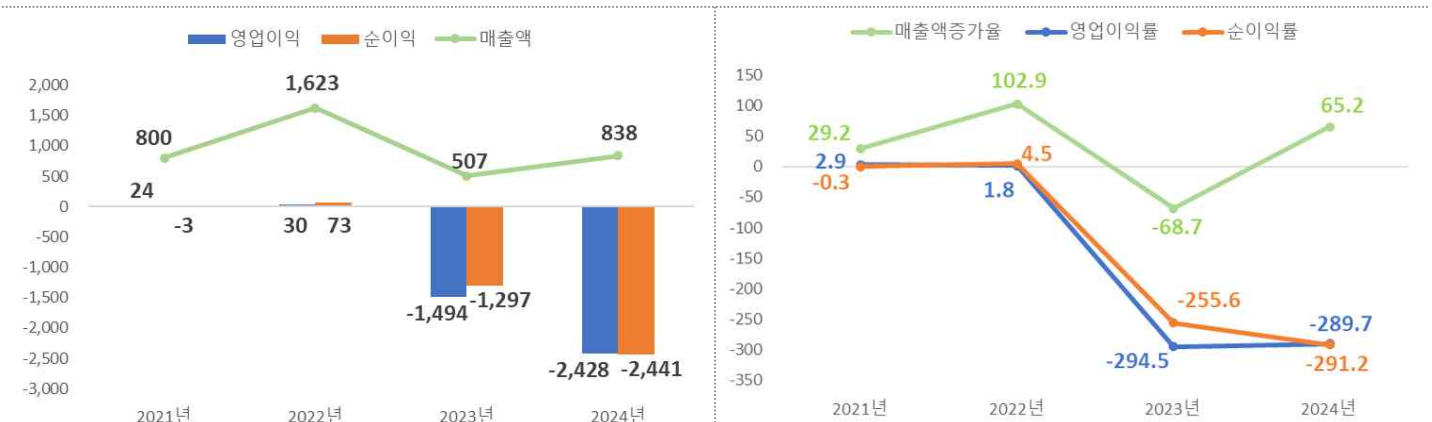
■ 2025년 'SK시그넷 2.0' 체제 출범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매출이 68.7% 감소하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매출 감소와 더불어 판매비 부담 증가로 1,494억 원의 영업손실과 1,29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2,42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매출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2025년 동사는 'SK시그넷 2.0' 실행으로 제조 역량 강화, 품질 고도화, 원가 구조 혁신 등을 추진하며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였으며, 영업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202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 개선

2023년 결산 기준, 당사는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와 장기반품충당부채 등 비유동부채의 증가로 부채총계가 전년 대비 1,134억 원 증가하고, 결손금의 증가로 자본총계가 1,246억 원 감소하며 총자산은 112억 원 감소한 2,988억 원이다. 유동비율은 2022년 640.4%에서 171.4%로 하락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8.3%에서 117.6%로 상승하였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결손금은 3,750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음수로 전환, 당사는 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부채는 3,467억 원으로 증가하고, 자본이 음수로 전환하며 자산 총계는 2,43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부채 변동은 장기반품충당부채가 감소하며 비유동부채가 축소되었음에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유동부채의 증가로 유동비율은 171.4%에서 크게 하락한 50.9%를 기록하였다. 당사는 2025년 SK(주) 대상 1,150억 원의 유상증자 및 마루베니 대상 35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GAAP 연결 기준)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800	1,623	507	838
매출액증가율(%)	29.2	102.9	-68.7	65.2
영업이익	24	30	-1,494	-2,428
영업이익률(%)	2.9	1.8	-294.5	-289.7
순이익	-3	73	-1,297	-2,441
순이익률(%)	-0.3	4.5	-255.6	-291.2
부채총계	481	480	1,614	3,467
자본총계	2,516	2,619	1,373	-1,028
총자산	2,996	3,100	2,988	2,439
유동비율(%)	664.9	640.4	171.4	50.9
부채비율(%)	19.1	18.3	117.6	자본잠식
자기자본비율(%)	84.0	84.5	46.0	자본잠식
영업현금흐름	174	-626	-1,213	-667
투자현금흐름	-2,001	1,278	538	-431
재무현금흐름	2,078	-69	569	646
기말 현금	316	893	787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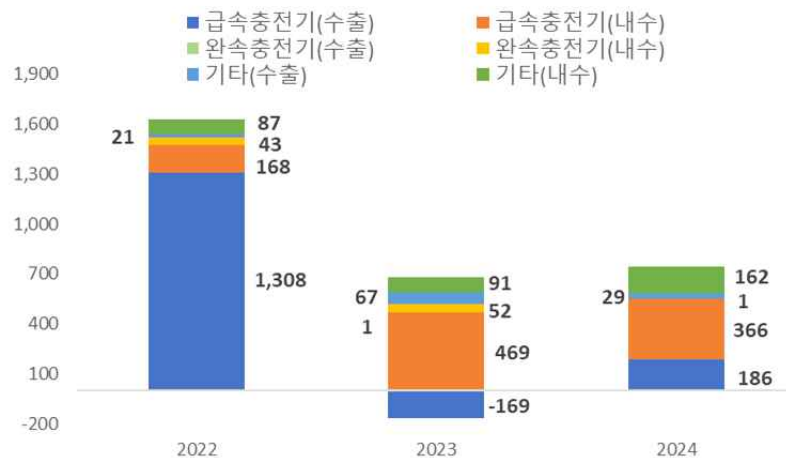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100kW~600kW급 초급속 충전기 개발 및 양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충전기 매칭 테스트를 국내 최초 및 세계 선두 수준으로 완료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수요 증가와 더불어 완속에서 급속, 초급속 충전기로의 기술 트렌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출력 충전기 시장에서 당사의 기술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수출 확대와 각국의 전기차 인프라 정책 지원에 힘입어 향후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5년 8월 발표된 미국의 신규 NEVI Guidance로 신속한 예산 승인이 진행되고 있어 2026년 이후 NEVI 사업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이는 동사 실적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연평균 3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 역시 2030년 2.5조 원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는 기술력, 고객 다변화, 수출 기반을 고르게 갖춘 기업으로서 2025년 매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8.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4.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매출액	1,626	511	744
급속충전기(수출)	1,308	-169	186
급속충전기(내수)	168	469	366
완속충전기(수출)	0	1	0
완속충전기(내수)	43	52	1
기타(수출)	21	67	29
기타(내수)	87	91	16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고도화

동사는 '2.0 체제'를 통해 조직·제조·품질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기술·생산·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PnC 기술 적용을 확대해 충전 운영 경험을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고 있다.

■ '2.0 체제' 출범 통한 사업구조 재정비

동사가 최근 '2.0 체제'로 조직·제조·품질·원가 측면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본격화했다. 이는 사업체질을 재정비해 기술·생산·운영의 통합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출력 충전기 시장에서 기술혁신이 경쟁우위 요인이 된 만큼, 새로운 체제 출범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이다. 이 조치로 동사는 품질 리스크를 줄이고 납기·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켜 글로벌 고객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PnC(플러그 & 차지) 기술 적용 및 국제 표준 대응 강화

동사는 국내 충전기 제조사 중 최초로 Hubject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PnC(Plug & Charge) 기술을 자사 충전기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술은 차량을 충전기에 꽂는 것만으로 인증·결제·충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며, 글로벌 완성차 및 충전사업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자 경험 향상 기능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단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충전 운영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충전 생태계 내에서 구성원·플랫폼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SK시그넷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도 불구하고 'SK시그넷 2.0' 체제 출범과 함께 품질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NEVI 프로그램의 '빌드 아메리카'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현지 생산 기반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국 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e로밍 네트워크 운영사인 허브젝트와의 PnC(플러그앤드차지) 기술 협약 등으로 호환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차별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 가속화를 통해 SK시그넷은 2027년부터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Gemini

SK시그넷은 최근 테슬라의 NACS 표준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충전 제품을 연내 출시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초급속 충전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반영한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연평균 30% 내외로 폭발적 성장할 전망이다. 가운데, SK시그넷의 기술 우위와 SK그룹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되어 향후 매출 급증과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출처: Grok

에스케이시그넷(26087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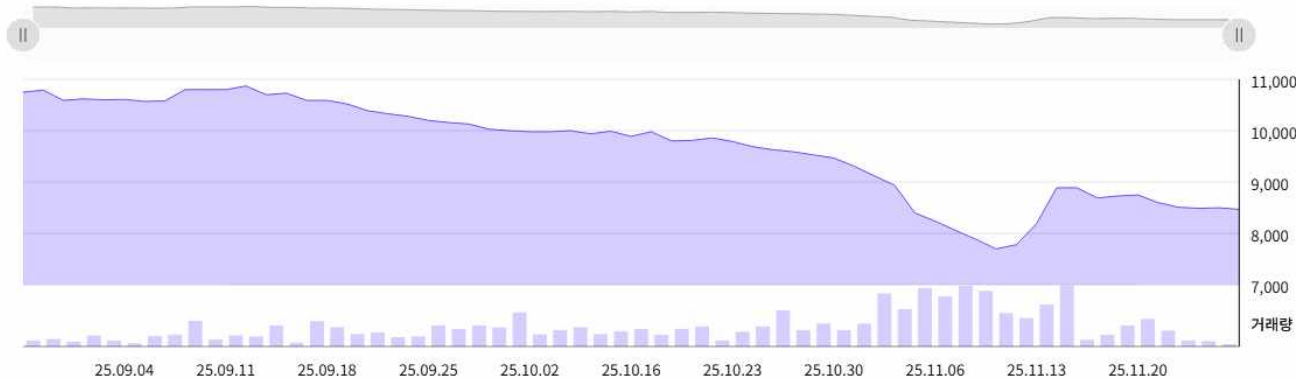
260870 코넥스

기준 : 2025.11.27 | 단위 : 원, 주, %

8,470 ▼30 -0.35%

전일	8,500	고가	8,600	거래량	1,568 주
시가	8,600	저가	8,250	거래대금	13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11.2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스케이시그넷(주)	X	X	X